

2023. 8. 1.(화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8.1.(화)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: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가치부

부 장	김종희 부장	02-2174-5301
팀 장	정일영 팀장	02-2174-5302
담 당 자	조윤송 차장	02-2174-5305
관련홈페이지	http://www.seoulshinbo.co.kr	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“자영업자 특화 데이터 융합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” 서울신용보증재단-한국신용데이터와 업무협약 체결

- 재단-한국신용데이터, 소기업·소상공인 전문기관으로서 보유 데이터 교류·활용 협업
- 캐시노트 앱 통해 신용보증 신청 연계도... 정책 접근성 확대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
- 신용평가모형 개선과 지원정책 데이터 공유 등 성장 지원 위한 공동 노력 추진

* 캐시노트: 한국신용데이터가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매출관리, 간편금융, 물품구매, 커뮤니티 등 이용 가능한 경영관리 서비스 앱

- 서울신용보증재단(이사장 주철수, 이하 재단)은 (주)한국신용데이터(대표 김동호, 이하 KCD)와 7월 28일(금), 강남구의 한국신용데이터 본사에서 ‘데이터 기반 서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했다.
-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i) 상호 보유 데이터 교류·분석을 통해 서울 소상공인 지원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, ii) 재단 모바일 앱과 캐시노트 앱을 연계하여 보다 간단하게 비대면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, iii)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 개선과 지원정책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- 재단은 약 30만 명의 서울시 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KCD의 캐시노트는 매출관리, 간편금융, 물품구매, 커뮤니티 이용이 가능한 전국 약 100만 명(서울 20만 명)의 자영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영업자 경영관리 서비스 플랫폼이다. 이러한 양 기관의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와 지원사업 개선 방향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 - 또한 재단은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를 위하여 비대면 보증지원 모바일 앱을 지난 5월 출시하였는데, 캐시노트 앱에서도 고객 동의 후 데이터를 통해 간단히 자가진단을 거치면 재단 앱으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.
 - 그 외에, 서울 소상공인에 특화된 데이터(실시간 카드매출, 단골지수 등)를 통해 신용평가모델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.
- 특히 재단과 한국신용데이터는 주고객이 소기업·소상공인이라는 점과 고객에게 경영과 성장을 종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는 만큼, 그동안 축적된 양 기관의 데이터와 다양한 고객 접점을 연계하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사각지대도 해소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 - 한편 한국신용데이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접수,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 홍보, 통계청 나우캐스트 데이터 제공 등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분야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다.
-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“소상공인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와 비대면 서비스 강화는 필수”라며, “한국신용데이터와 재단이 보유한 소상공인 데이터 및 지원 노하우를 결합하여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